심화 2024년도 제7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지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체험 프로그램 기획안]

(가) 시대로 떠나는 시간 여행

▣ 기획 의도

뗀석기를 처음 사용한 (가)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체험 프로그램 예시



[주먹도끼로 고기 자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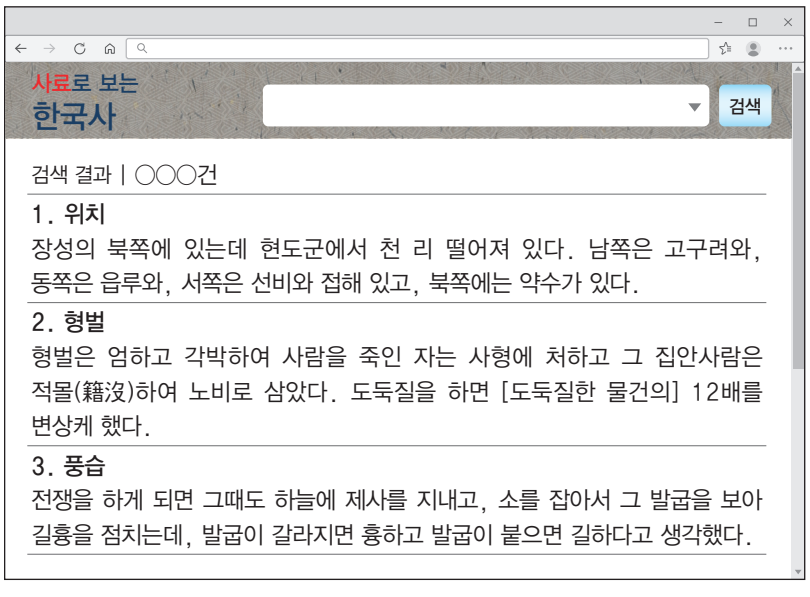


[마찰식 점화법으로 불 피우기]

▣ 장소: 연천 전곡리 유적 체험 마당

①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다.
② 청동 방울 등을 의례 도구로 사용하였다.
③ 따비와 괭이로 땅을 갈아 농사를 지었다.
④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동검을 제작하였다.
⑤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2.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②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③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④ 여러 가(加)들이 각각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만들었다.

3.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특별 기획 큐레이터와의 대화

유물을 통해 본 (가)의 대외 교류

우리 박물관에서는 수로왕이 건국했다고 전해지는 (가)의 유물을 큐레이터가 직접 설명하는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가)의 활발했던 대외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 주요 해설 유물

중국과 교류를 보여 주는 금동허리띠	왜와 교류를 보여 주는 바람개비모양 동기	북방과 교류를 보여 주는 청동솥
		

▣ 기간: 2024년 ○○월 ○○일~○○월 ○○일

▣ 장소: △△ 박물관

① 법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②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③ 6좌평이 중요한 국사를 논의하였다.
④ 만장일치제로 운영된 화백 회의가 있었다.
⑤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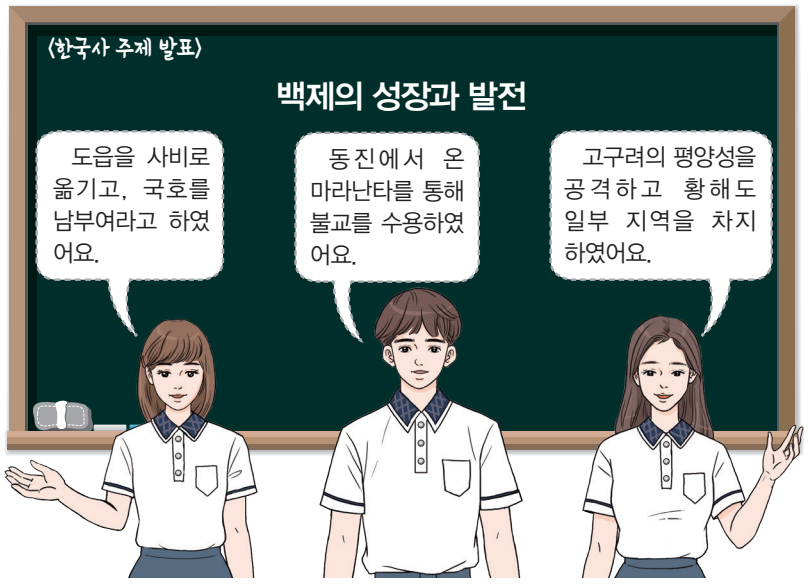
4.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왕이 고구려가 자주 국경을 침략하는 것을 걱정하여 수에 군사를 요청해 고구려를 치고자 하였다. 이에 (가)에게 명하여 걸사표를 짓도록 하였다. (가)이/가 말하기를, "자기가 살고자 남을 멸하는 것은 출가한 승려로서 적합한 행동은 아니지만, 제가 대왕의 땅에서 살고 대왕의 물과 풀을 먹고 있으니 어찌 감히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서 글을 써서 올렸다.

①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②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③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④ 사군이충 등을 포함한 세속 5계를 제시하였다.
⑤ 풍수지리 사상이 반영된 송악명당기를 저술하였다.

제7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5.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가) (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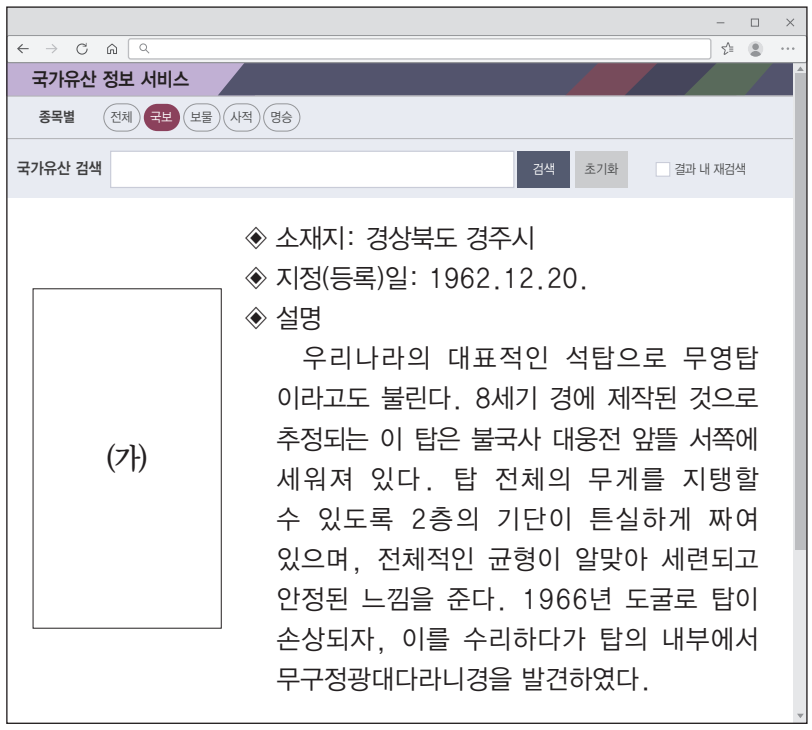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⑤ (다) – (나)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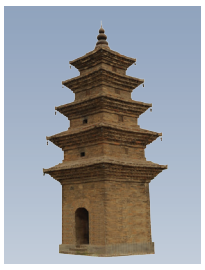
6.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병부와 상대등을 설치하였다.
② 백제 비유왕과 동맹을 체결하였다.
③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④ 매소성 전투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⑤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귀족들을 숙청하였다.

7. (가)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② 
③ 
④ 
⑤ 

8.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12월에 황제가 함원전에서 포로를 받아들였다. [황제가] 왕은 정사를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였기에 용서하여 사평태상백원외동정으로 삼았다. 천남산은 사재소경으로, 승려 신성은 은청광록대부로, 천남생은 우위대장군으로 삼았다. …… 천남건은 검주(黔州)로 유배를 보냈다. 5부, 176성, 69만여 호를 나누어 9도독부, 42주, 100현으로 만들고,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두어 이를 통치하게 하였다.
>
> –『삼국사기』–

① 안승이 보덕국왕으로 임명되었다.
②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③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켰다.
④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⑤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을 시해하였다.

제7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9.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 개원(開元) 20년에 발해가 천자의 조정을 원망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등주(登州)를 습격하여 자사 위준을 살해하였습니다. 이에 황제께서 크게 노하여 하행성 등에게 군사를 징발하여 바다를 건너 공격해 토벌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에 숙위하고 있던 신라인 김사란을 귀국시켜 신라로 하여금 발해를 공격하도록 하였습니다. …… 겨울은 깊어 가고 눈이 많이 내려 신라와 당의 군대가 추위에 고생하므로 회군을 명령하였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발해 건국	무왕 즉위	문왕 상경 천도	선왕 즉위	고려 건국	발해 멸망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0.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1점]

> 왕이 제서(制書)를 내리기를,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전화(錢貨)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서북의 양조(兩朝)에서는 이를 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우리나라는 홀로 아직 행하지 않고 있다. 이제 처음으로 화폐를 주조하는 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주조한 동전 15,000관(貫)을 재추(宰樞)와 문무 양반 및 군인에게 나누어 하사하여 화폐 사용의 시작점으로 삼고자 한다. 전문(錢文)은 해동통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①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두었다.
②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 작물이 재배되었다.
③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④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⑤ 설점수세제의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되었다.

11.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가) 처음으로 역분전을 정하였다. 통일할 때 조정의 관리들과 군사들에게 관계(官階)는 논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이 착하고 악함과 공로가 크고 작음을 참작하여 차등 있게 주었다.
>
> (나) 12월에 문무 양반 및 군인들의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제1과는 전지 100결, 시지 70결을 지급한다. …… 제18과는 전지 20결을 지급한다. 이 한(限)에 들지 못한 자에게는 모두 전지 17결을 주기로 하고 이것을 통상의 법식으로 한다.

① 경기에 한하여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②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③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가 되었다.
④ 만적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 반란을 모의하였다.
⑤ 최충헌이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하였다.

12.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 북원의 도적 우두머리인 양길은 (가)이/가 자신을 배신한 것을 미워하여 국원 등 10여 곳의 성주들과 그를 칠 것을 모의하고 비뇌성 아래로 진군하였다. 그러나 양길의 병사는 패배하여 흩어져 달아났다.
>
> –『삼국사기』–
>
> ○ [태조가] 수군을 거느리고 서해로부터 광주(光州) 부근에 이르러 금성군을 쳐서 함락하고 10여 군현을 공격하여 차지하였다. 이에 금성군을 고쳐서 나주라 하고 군사를 나누어서 지키게 한 뒤 돌아왔다. …… (가)이/가 변경의 일을 물었는데, 태조가 변방을 안정시키고 경계를 넓힐 전략을 보고하였다. 좌우의 신하가 모두 [태조를] 주목하게 되었다.
>
> –『고려사』–

① 일리천 전투에서 신검의 군대를 물리쳤다.
② 9산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하였다.
③ 문무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④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⑤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13.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국자감에 전문 강좌인 7재를 개설하였어.
② 사액 서원에 서적과 노비 등을 지급하였어.
③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여 인재를 등용하였어.
④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여 문신을 재교육하였어.
⑤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두고 속장경을 편찬하였어.

제7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14. 다음 서술형 평가의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서술형 평가

○학년 ○○반 이름: ○○○

◎ 다음 상황들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을 서술하시오.

○ 이의방은 평소 자기를 핍박하는 이고를 미워하였는데, 이고가 난을 모의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살해하였다.

○ 서경유수 조위총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두경승이 향산동 통로역에서 반란군을 패퇴시켰다.

○ 최우가 정방(政房)을 자기 집에 설치하고 문사를 선발하여 여기에 소속시켰다.

답안 ( )

① 서얼이 통청 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청해진을 거점으로 국제 무역이 이루어졌다.
③ 왕조 교체를 예언하는 정감록 등이 유포되었다.
④ 망이·망소이의 난 등 하층민의 봉기가 발생하였다.
⑤ 역관들이 시사(詩社)에 참여해 위항 문학 활동을 하였다.

15.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2점]

○ 박서는 김중온의 군사로 성의 동서쪽을, 김경손의 군사로는 성의 남쪽을, 별초 250여 인은 나누어 3면을 지키게 하였다. (가)의 군사들이 성을 여러 겹으로 포위하고 공격하자 성안의 군사들이 갑자기 나가 싸워 그들을 패주시켰다.

○ 송문주는 귀주에서 종군하였던 사람인데 그 공으로 낭장(郎將)으로 초수(超授)되었다. 이후 죽주 방호별감이 되었을 때, (가)이/가 죽주성에 이르러 보름 동안이나 다방면으로 공격하였으나 성을 빼앗지 못하고 물러갔다.

①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항전하였다.
② 광군을 창설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③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군사력을 증강하였다.
④ 철령위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다.
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창설하였다.

16. (가) 국가의 국가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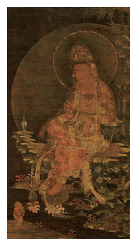
제△△호 2024년 ○○월 ○○일

'국보 순회전: 모두의 곁으로', 강진군에서 열려



▲ 청자 상감 모란무늬 항아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한 국보 순회전이 전남 강진군에서 '도자기에 핀 꽃, 상감 청자'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청자 상감 모란무늬 항아리, 청자 상감 물가풍경무늬 매병 등 (가)의 대표적인 국가유산인 상감 청자가 공개된다. 특히 국보 '청자 상감 모란무늬 항아리'는 왕실 자기의 전형을 보여 주는 유물로 모란을 정교하고 화려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시회 관계자는 "상감 청자의 생산지였던 강진군에서 개최되어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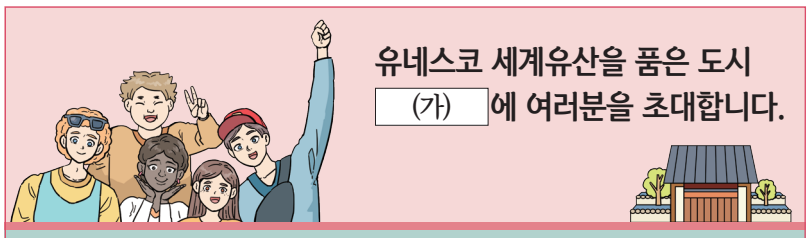
17.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
② 정혜결사를 통해 불교 개혁에 앞장섰다.
③ 청방인문표를 지어 인질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④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조한 동명왕편을 지었다.
⑤ 만권당에서 조맹부, 요수 등의 문인들과 교유하였다.

제7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18.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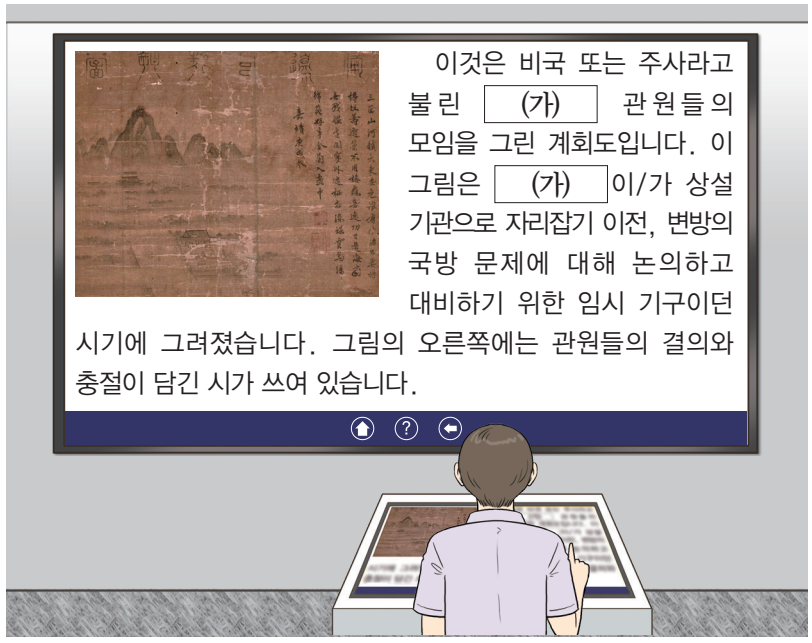
① 왕건이 고창 전투에서 견훤에게 승리하였다.
②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고 국호를 대위라 하였다.
③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되었다.
④ 정중부를 비롯한 무신들이 보현원에서 정변을 일으켰다.
⑤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고려군이 황산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19. 밑줄 그은 '임금'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임금이 무악에 이르러서 도읍을 정할 땅을 물색하였다. 좌시중 조준, 우시중 김사형에게 말하였다. "고려 말에 서운관에서 송도의 지덕이 이미 쇠했다는 이유로 여러 번 글을 올려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자고 하였다. 근래에는 계룡이 도읍할 만한 곳이라 하기에 백성을 공사에 동원하여 힘들게 하였다. 이제 또 여기가 도읍할 만한 곳이라 하여 와서 보니, 유한우 등이 도리어 무악보다는 송도가 더 명당이라고 고집한다. 그대들은 도읍할 만한 곳을 서운관 관리에게 다시 보고받도록 하라."

① 독창적 문자인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
② 수도 방어를 위하여 금위영이 창설되었다.
③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④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발생하였다.
⑤ 성삼문 등이 상왕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되었다.

20.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② 흥선 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
③ 국왕 직속 사법 기구로 반역죄 등을 다루었다.
④ 5품 이하의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⑤ 도승지를 수장으로 좌승지, 우승지 등의 관직을 두었다.

21.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었다.
②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이 원인이 되었다.
③ 왕실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일어났다.
④ 진성 대군이 왕으로 즉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⑤ 조광조 등이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하였다.

제7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22.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임금이 여러 도(道)에 명을 내렸다. "나라의 운세가 매우 좋지 않아 역적 이괄이 군사를 일으켰는데, 여러 장수들이 좌시하여 수도가 함락되고 말았다. …… 예로부터 반역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지만, 이처럼 극도로 흉악한 역적은 없었다. 종사와 자전*을 염려하여 남쪽으로 피란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정명수가 심양에 있는 소현 세자의 관소에 와서 용골대의 뜻을 전하기를, "세자가 이곳에 들어온 지가 이미 5년이 되었으니, 어찌 스스로 먹고살 길을 마련하지 않는가. 세자와 인질들에게 어찌 먹고살 식량을 늘 지급해 줄 수가 있겠는가. 경작할 땅을 주어 내년부터 각자 농사를 지어 먹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자전(慈殿): 임금의 어머니

① 정문부가 길주에서 의병을 이끌었다.
②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③ 영창 대군이 사사되고 인목 대비가 유폐되었다.
④ 이덕형이 구원병 요청을 위해 명에 청원사로 파견되었다.
⑤ 김상헌 등이 남한산성에서 화의에 반대하여 항전을 주장하였다.

23.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좌의정 채제공이 왕에게 아뢰었다. "빈둥거리는 무뢰배가 삼삼오오 떼를 지어 스스로 상점을 개설하고 일용품을 거래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큰 물건에서 작은 물건까지 싼값에 억지로 사들이기 일쑤입니다. 혹 물건 주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난전(亂廛)으로 몰아서 결박하여 형조와 한성부로 끌고 가 혹독한 형벌을 당하도록 합니다. 이 때문에 물건 주인은 본전에서 밑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팔고 갑니다. 그리고 무뢰배들은 제각기 가게를 벌여놓고 배나 되는 값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사람은 그 가게 외에서는 물건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물건 값이 날마다 치솟고 있습니다."

① 계해약조의 체결 과정을 확인한다.
② 오가작통법의 실시 목적을 파악한다.
③ 신해통공을 단행하게 된 배경을 조사한다.
④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부과한 이유를 살펴본다.
⑤ 풍흉에 따라 전세를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알아본다.

24. 밑줄 그은 '이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① 최제우가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되었다.
② 변급, 신류 등이 나선 정벌에 참여하였다.
③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창설되었다.
④ 경신환국 등 여러 차례 환국이 발생하였다.
⑤ 정여립 모반 사건을 빌미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25. 밑줄 그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기대승과 사단칠정 논쟁을 전개하였다.
②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③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④ 청으로부터 시헌력을 도입하자고 건의하였다.
⑤ 열하일기에서 수레와 선박의 사용을 강조하였다.

26.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① 담배 농사를 짓는 농민
② 염포 왜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③ 세책가에서 춘향전을 빌리는 부녀자
④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공인
⑤ 송파장에서 산대놀이 공연을 벌이는 광대

27.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①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이 추진되었다.
② 윤지충 등이 처형된 신해박해가 일어났다.
③ 이필제가 영해 지역을 중심으로 난을 일으켰다.
④ 경복궁 중건 비용 마련을 위해 당백전이 발행되었다.
⑤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28. (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① 의궤를 비롯한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당하였다.
② 홍경래 등이 난을 일으켜 정주성을 점령하였다.
③ 종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④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유역에서 통상을 요구하였다.
⑤ 황사영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29. (가), (나) 조약 사이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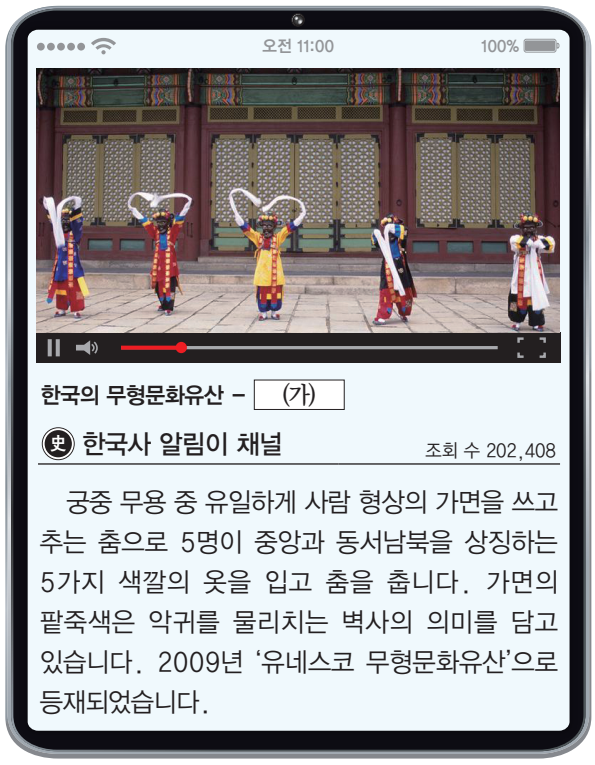
(가) 부산항에서 일본국 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이정(里程)은 부두로부터 기산하여 조선 이법(里法)으로 동서남북 직경 10리로 정한다. 동래부는 이정 밖에 있지만 특별히 왕래할 수 있다. 일본국 인민은 마음대로 통행하며 조선 토산물과 일본국 물품을 사고팔 수 있다.

(나) 통상 지역에서 조선 이법 100리 이내, 혹은 장래 양국 관원이 서로 의논하여 정하는 경계 안에서 영국 인민은 여행증명서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 여행증명서를 지닌 영국 인민은 조선 각지를 돌아다니며 통상하거나, 각종 화물을 들여와 팔거나(단, 조선 정부가 불허한 서적 · 인쇄물 등은 제외), 일체 토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①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영국 군인
② 남연군 묘의 도굴을 시도하는 독일 상인
③ 부산 절영도의 조차를 요구하는 러시아 공사
④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는 청 관리
⑤ 톈진 조약에 따라 조선에서 철수하는 일본 군인

제7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처용 설화를 바탕으로 하였다.
② 종묘에서 행하는 제향 의식이다.
③ 부처의 영취산 설법 모습을 재현하였다.
④ 창과 아니리, 너름새 등으로 구성되었다.
⑤ 양반, 파계승 등을 풍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31. 밑줄 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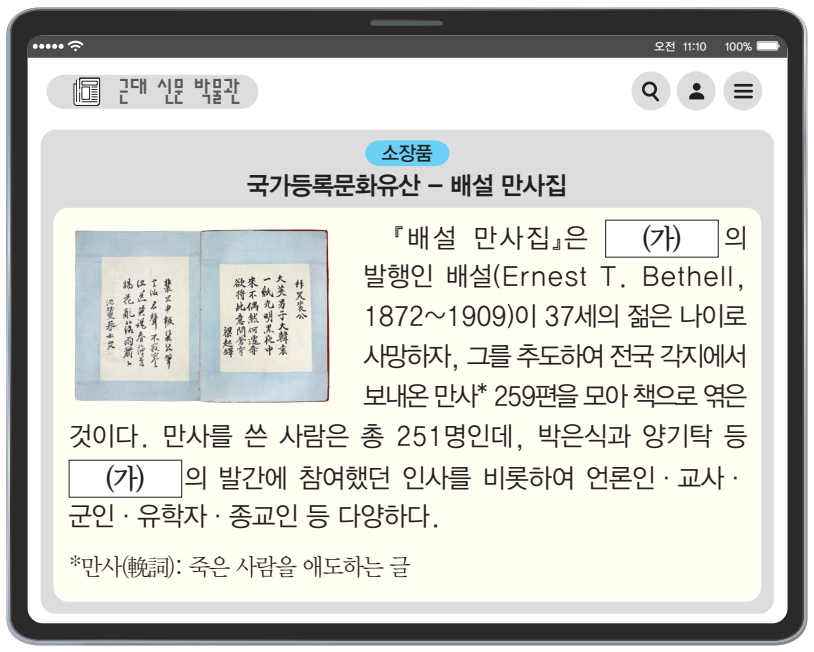
①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② 지방 행정 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다.
③ 군제를 개편하여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하였다.
④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였다.
⑤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였다.

32. (가) 기구를 통해 추진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②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③ 대전통편을 편찬하였다.
④ 신문지법을 공포하였다.
⑤ 서당 규칙을 제정하였다.

33. (가)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박문국에서 발행하였다.
② 브나로드 운동을 주도하였다.
③ 여권통문을 처음 게재하였다.
④ 국채 보상 운동을 지원하였다.
⑤ 순한글판으로 발행된 최초의 신문이었다.

제7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4.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독립문 주춧돌 놓는 예식을 독립 공원 부지에서 열었다. …… 회장 안경수 씨가 연설하기를, "(가)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단지 회원이 네다섯 명이더니 오늘날 회원은 수천 명이다. 조선 인민들이 나라가 독립되는 것을 좋아하기에 심지어 궁벽한 시골에 사는 인민 중에서 독립문 세우는 데 돈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외국 사람 중에서도 돈 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을 보면 조선 사람들도 오늘부터 조선에서 모든 일을 (가) 하듯이 시작하여 모두 합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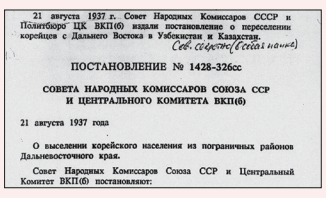
①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시켰다.
③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④ 대성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⑤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35. 밑줄 그은 '사업'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화폐로 보는 한국사**
>
>
>
> 백동화(白銅貨)는 전환국에서 발행한 액면가 2전 5푼의 동전이다. 당시 재정 궁핍으로 본위 화폐인 은화는 거의 주조되지 않았고, 보조 화폐인 백동화가 주로 제조되어 사용되었다. 러일 전쟁 중에 재정 고문으로 임명된 메가타 다네타로의 주도하에 전환국을 폐지하고 백동화와 엽전을 일본 제일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백동화의 발행이 중단되었다.

① 군국기무처의 활동을 조사한다.
② 당오전이 발행된 배경을 파악한다.
③ 삼국 간섭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다.
④ 대한 광복회가 결성된 목적을 살펴본다.
⑤ 제1차 한일 협약 체결의 영향을 알아본다.

36. (가) 지역에서 일어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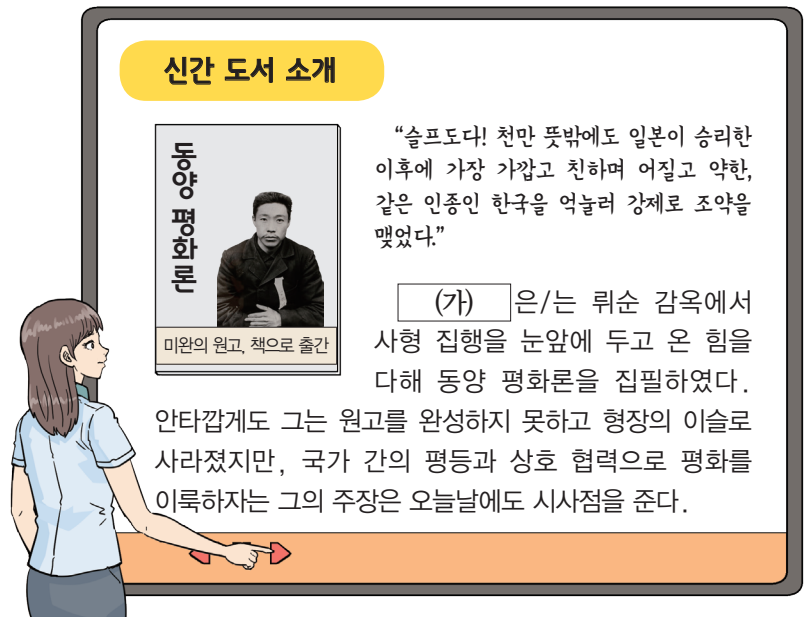

21 августа 1937 г. Совет Народных Комиссаров СССР и Политбюро ЦК ВКП(б) издали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переселении корейцев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Узбекистан и Казахстан.
Сев. сообщение (Severnaya pochta)
ПОСТАНОВЛЕНИЕ № 1428-326сс
СОВЕТА НАРОДНЫХ КОМИССАРОВ СОЮЗА ССР
И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ВКП(б)
21 августа 1937 года
О высел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из по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Совет Народных Комиссаров Союза ССР и Центральный Комитет ВКП(б) постановляют:

이 문서는 일제에 협력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가)의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라는 명령서이다.

1937년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이 승인한 이 명령의 시행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가)의 한인 10만 명 이상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지로 강제 이주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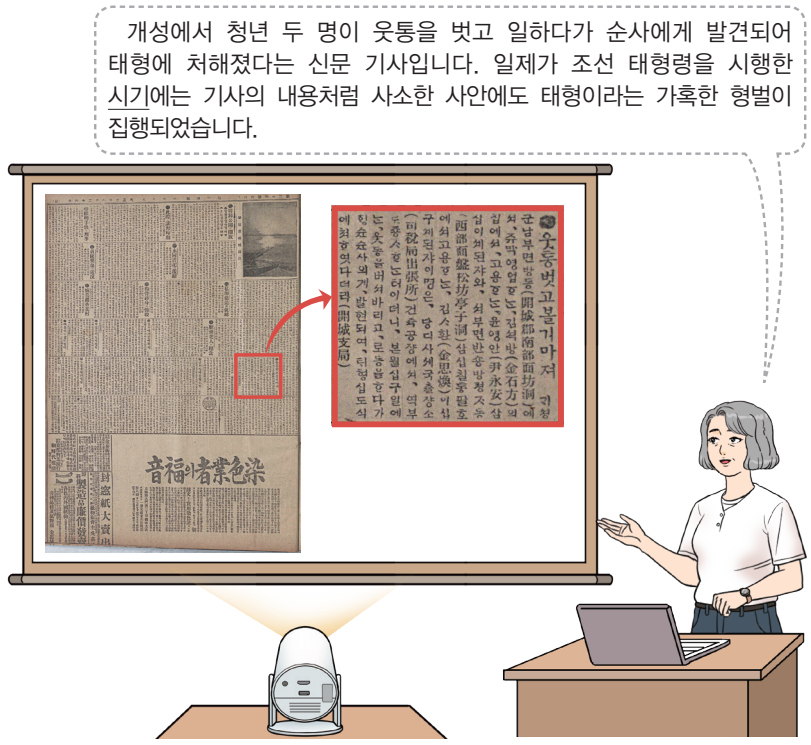
① 권업회를 조직하고 신문을 발행하였다.
② 한인 자치 기구인 경학사를 설립하였다.
③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④ 독립군 양성을 위해 대조선 국민 군단을 결성하였다.
⑤ 서전서숙과 명동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37.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였다.
②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③ 타이중에서 일본 육군 대장을 저격하였다.
④ 샌프란시스코에서 D.W.스티븐스를 처단하였다.
⑤ 서울역에서 신임 총독의 마차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38. 밑줄 그은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육영 공원에서 외국인 교사를 초빙하였다.
② 애국반이 편성되어 일상생활이 통제되었다.
③ 조선 형평사가 창립되어 형평 운동을 전개하였다.
④ 나운규가 제작한 아리랑이 단성사에서 개봉되었다.
⑤ 경복궁에서 조선 물산 공진회가 최초로 개최되었다.

제7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9. (가), (나)가 공포된 시기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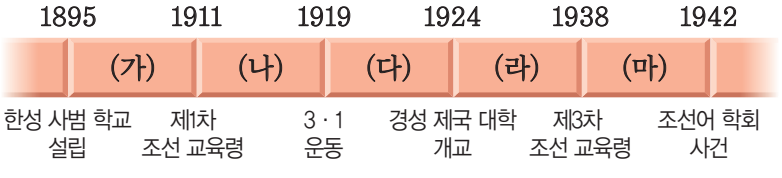
(가) 회사령 폐지에 관한 건
회사령은 폐지한다.
– 부칙
1. 이 영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구령에 의하여 설립한 회사로 이 영 시행 당시 존재하는 것은 조선 민사령에 의하여 설립한 것으로 본다.

(나) 조선 총독부 농촌 진흥 위원회 규정
제1조 조선의 농산어촌 진흥에 관한 방침, 시설 및 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선 총독부에 조선 총독부 농촌 진흥 위원회를 둔다.
제3조 위원장은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으로 한다.

① 함경도에서 방곡령이 선포되었다.
② 조선 물산 장려회가 평양에서 창립되었다.
③ 황국 중앙 총상회의 상권 수호 운동이 전개되었다.
④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규정한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⑤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력과 물자를 강제 동원하였다.

40. 다음 자료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대학을 세운다는 일은 극히 거창하여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성취할 바가 아니므로 금일까지 실지의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라. 그러나 일이 거창하고 어렵다고 시작을 아니하면 언제까지든지 조선 사람의 대학이라는 것은 생겨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번에 조선 전도의 다수한 유지를 망라하여 민중적 운동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의 힘을 합하여 민립 대학 한 곳을 세워 보고자 이상재, 이승훈 등의 주창으로 수일 전에 민립 대학 기성 준비회를 조직하고 집행위원을 선정하였는데, 장차 각 부·군에서 다수한 발기인의 참가를 구하여 경성에서 발기회를 열고 실행 방법을 결정할 터이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41. (가)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탐구 활동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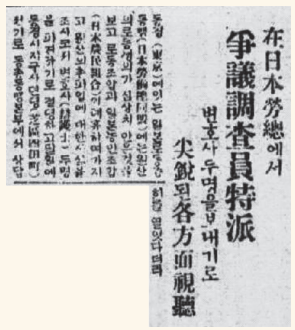
○학년 ○○반 이름: ○○○

⊙ 주제: (가)에 대한 국외 반응

⊙ 탐구 목적

라이징 선 석유 주식회사의 문평 공장에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한 일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일제 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 운동에 대한 국외 반응을 당시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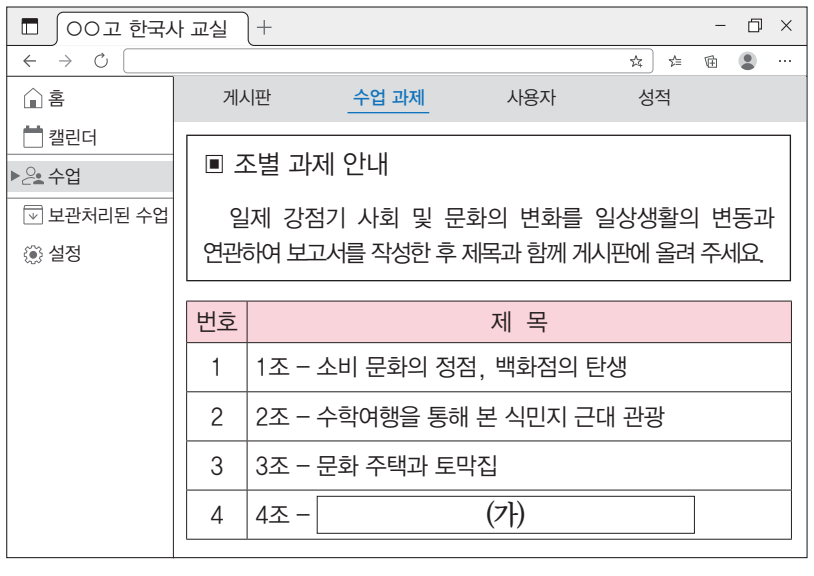
⊙ 자료 및 해설


在日本勞總에서
爭議調査員特派
변호사 두명을보내기로
尖銳된各方面視聽

이것은 재일본노총에서 (가)을/를 조사하기 위해 변호사를 파견한다는 당시 신문 기사이다. 기사에 보도된 일본의 조선인 노동 단체뿐 아니라 중국 지역의 여러 노동 단체도 격려와 후원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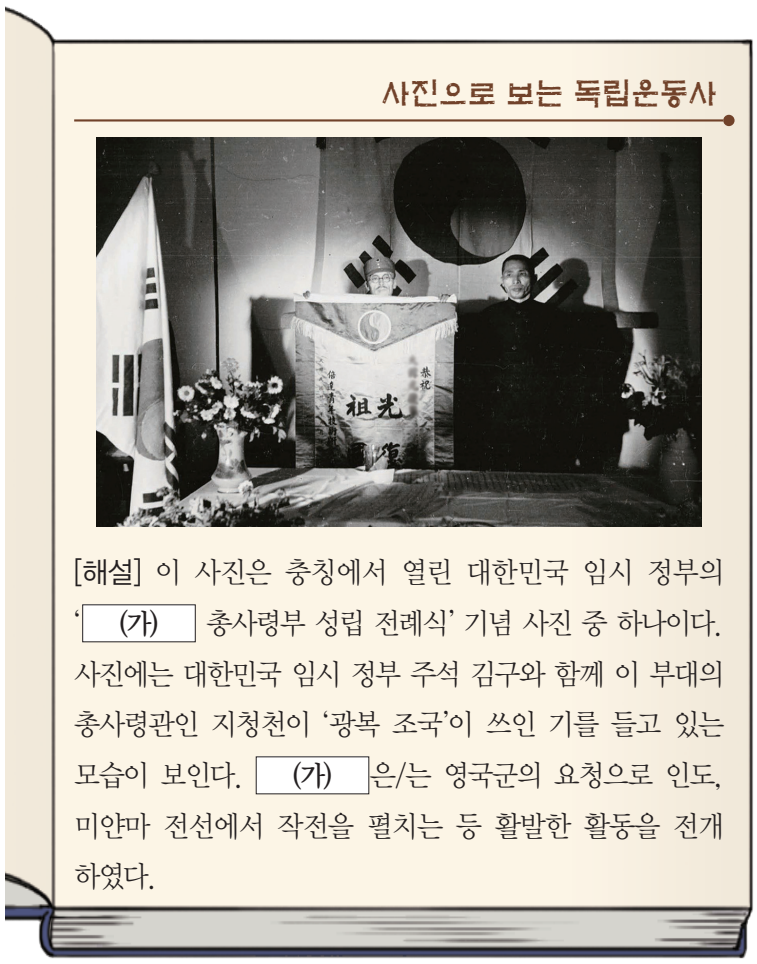
①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②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다.
③ 황실의 지원을 받아 대한 천일 은행이 창립되었다.
④ 전국 단위의 조직인 조선 노농 총동맹이 조직되었다.
⑤ 고율의 소작료에 반발하여 암태도 소작 쟁의가 발생하였다.

4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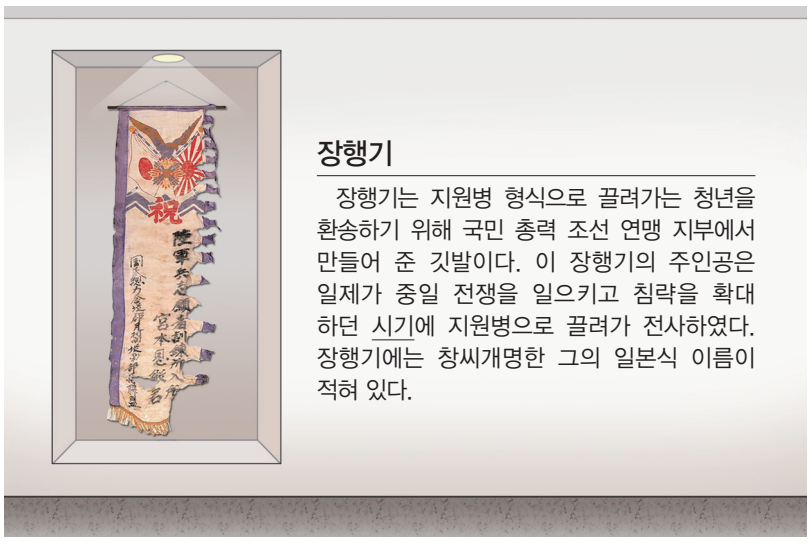
① 서양식 의료의 수용, 광혜원
② 근대적 우편 제도의 시작, 우정총국
③ 전시 통제 체제 속에서 강요된 여성복, 몸빼
④ 근면, 자조, 협동을 기치로 내세운 새마을 운동
⑤ 상품 광고의 새로운 장을 연 컬러텔레비전 방송

43.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② 영릉가에서 일본군에 승리를 거두었다.
③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④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⑤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44.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2점]



① 국방헌금 모금에 적극 협력하는 부호
② 황국 신민 서사 암송을 강요받는 학생
③ 원각사에서 연극 은세계를 공연하는 배우
④ 내선일체에 협력하자는 논설을 쓰는 언론인
⑤ 국민 징용령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는 노동자

45. 다음 안내에 따라 학생이 발표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장의 유적과 기념물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금강 중류에 위치한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남한에서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 유적이 있어 선사 시대부터 우리 고장에 사람이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삼국이 상호 경쟁하던 시기에는 백제의 수도로서 백제 중흥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던 곳으로 백제 고분을 통해 당시의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 설치된 12목 중의 하나였고, 이후 조선 시대에도 감영이 있어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대에는 동학 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는 등 외세를 물리치기 위한 민족 운동이 펼쳐지기도 하였습니다.
>
> 그럼, 모둠별로 우리 고장의 다양한 유적과 기념물에 대해 조사한 후 알게 된 내용을 발표해 봅시다.

① 갑 – 수양개 유적을 조사하여 우리 고장에 살던 구석기인들이 다양한 기법으로 석기를 제작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② 을 – 송산리 고분군의 벽돌무덤을 조사하여 무령왕이 중국 남조, 왜 등과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③ 병 – 만인의총을 조사하여 정유재란 당시 우리 고장의 백성들이 조명 연합군과 함께 결사 항전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④ 정 – 만석보 유지비를 조사하여 우리 고장 농민들이 군수 조병갑의 수탈에 저항하여 봉기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⑤ 무 – 아우내 3·1 운동 독립 사적지를 조사하여 유관순이 우리 고장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46.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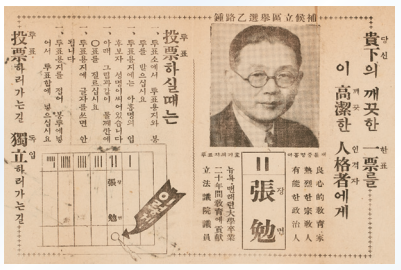


① 애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
②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되었다.
③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④ 김구, 김규식 등이 남북 협상에 참여하였다.
⑤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제7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7. 밑줄 그은 '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공보물로 본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



[해설] 이것은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하에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에 출마한 장면 후보자의 선거 공보이다. 후보자의 사진, 약력, 선거 구호 등이 보이고, 특히 자세한 투표 안내가 눈에 띈다.

① 5·16 군사 정변 이후에 실시되었다.
②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③ 통일 주체 국민 회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④ 민의원,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가 탄생하였다.
⑤ 신한 민주당이 창당 한 달 만에 제1 야당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48. 다음 기사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신문

제△△호 ○○○○년 ○○월 ○○일

제24회 서울 올림픽 개회식이 열리다



제24회 서울 올림픽 개회식이 어제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다. 개회식 마지막 행사에서는 주제곡 '손에 손잡고'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울 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를 비롯하여 이전 올림픽의 마스코트들이 함께 춤추는 장면이 연출되어 동서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12년 만에 동서 양 진영이 함께 모인 이번 대회에서는 160개국의 선수 8,000여 명이 참가하여 과거 어느 대회보다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① 국민 교육 헌장이 발표되었다.
② 3당 합당으로 민주 자유당이 창당되었다.
③ 군 내부의 사조직인 하나회가 해체되었다.
④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 교육대가 설치되었다.
⑤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금 모으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49.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하계 답사 안내 ●

우리 문화원에서는 부산과 마산 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이 일으킨 (가)의 의미를 조명하는 답사를 준비하였습니다. YH 무역 사건,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 등 일련의 사건으로 당시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일어난 (가)의 유적지를 둘러보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기간: 2024년 ○월 ○○일~○월 ○○일
◈ 답사 일정
- 1일차: 부산대 10·16 기념관 – 국제 시장 – 부산 양서 협동조합 터
- 2일차: 경남대 교내 기념석 – 서항 공원 – 창동 사거리

◈ 주요 답사지


10·16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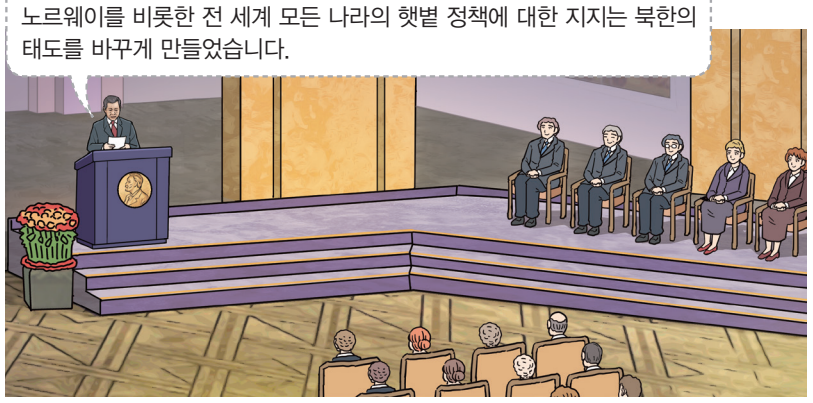

서항 공원 내 기념물

◈ 주관: △△ 문화원

① 유신 체제 붕괴의 배경이 되었다.
② 시민군을 조직하여 계엄군에 대항하였다.
③ 시위 도중 김주열이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였다.
④ 직선제 개헌을 약속한 6·29 선언을 이끌어냈다.
⑤ 대통령이 하야하여 미국으로 망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50.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2점]

노벨 위원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최근의 남북 관계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 우리의 일관되고 성의 있는 자세와 노르웨이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햇볕 정책에 대한 지지는 북한의 태도를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① 남북 기본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②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③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④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합의하였다.
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을 최초로 실현하였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71회 심화 정답과 해설

정답표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①	④	⑤	③	⑤	①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①	④	①	⑤	⑤	①	④	②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③	⑤	③	④	②	②	⑤	③	④	①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③	①	④	③	⑤	①	②	⑤	②	③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②	③	④	③	②	⑤	②	②	①	③

공식 공개 시험지 · 봄기출 문항별 해설

1 선사 · 구석기 시대 — 정답 ①

① O 해설 맞다. 자료의 (가)는 구석기 시대다. 「뗀석기를 처음 사용한」, 「주먹도끼」, 「연천 전곡리 유적」이 단서다. 구석기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찾아 옮겨 다녔기 때문에 동굴이나 바위 그늘, 강가의 막집에서 머물렀다.

② X 해설 틀리다. 청동 방울은 청동기 시대부터 초기 철기 시대에 걸쳐 군장(제사장)이 의식을 치를 때 쓴 도구다. 구석기 시대에는 아직 금속을 다룰 줄 몰랐다.

③ X 해설 틀리다. 땅을 갈아 농사를 지은 것은 농경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 이후의 일이다. 청동기 시대 유물인 농경문 청동기에는 따비로 밭을 가는 사람이 새겨져 있다. 구석기 사람들은 사냥과 채집으로 먹고살았다.

④ X 해설 틀리다. 거푸집(주물 틀)에 청동을 부어 세형동검을 만든 것은 철기 시대(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 세형동검은 비파형동검보다 칼날이 좁아진 한반도 고유의 동검이다.

⑤ X 해설 틀리다.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 토기다. 신석기 사람들은 한곳에 머물러 살면서 토기에 곡식을 담아 저장했다.

2 선사 · 부여 — 정답 ④

① X 해설 틀리다. 신성 지역인 소도는 삼한에 있었다. 소도는 천군이 다스리는 곳이라 죄인이 도망쳐 들어가도 잡아가지 못했다.

② X 해설 틀리다. 어린 여자아이를 신랑 집에서 키우다가 어른이 되면 혼인시키는 민며느리제는 옥저의 풍습이다.

③ X 해설 틀리다. 다른 마을의 경계를 침범하면 노비나 소·말로 물어 주게 한 책화는 동예의 풍습이다.

④ O 해설 맞다. 검색창에 들어갈 나라는 부여다. 「장성의 북쪽」, 「남쪽은 고구려와 접해 있다」는 위치, 도둑질하면 12배로 갚게 한 엄한 법, 소 발굽으로 길흉을 점친 풍습이 단서다. 부여에서는 왕 아래의 마가·우가·저가·구가 같은 여러 가(加)가 사출도라는 지역을 따로 다스렸다.

⑤ X 해설 틀리다. 범금 8조(8조법)는 고조선의 법이다. 사람을 죽이면 사형,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갚는다는 등 세 조목이 전해진다.

3 고대 · 금관가야와 대가야 정답 ①

① O 해설 맞다. (가)는 금관가야다. 「수로왕이 건국했다고 전해지는」 나라라는 설명이 단서이고, 중국·왜·북방과 교류한 유물이 함께 소개되었다. 금관가야는 532년 법흥왕 때 신라에 항복해 합쳐졌다.

② X 해설 틀리다. 서옥제는 고구려의 혼인 풍습이다. 혼인을 정하면 신부 집 뒤에 작은 집(서옥)을 짓고 신랑이 머물다가, 자식이 자라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③ X 해설 틀리다. 6좌평이 나랏일을 나누어 맡은 것은 백제다. 좌평은 백제의 가장 높은 관등이었다.

④ X 해설 틀리다. 만장일치로 나랏일을 결정한 화백 회의는 신라의 귀족 회의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결정하지 않았다.

⑤ X 해설 틀리다.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보내 다스린 것은 백제다. 『양서』에 백제가 22담로를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4 고대 · 삼국의 불교 정답 ④

① X 해설 틀리다.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오천축국전』을 남긴 승려는 혜초다. 그는 723년 무렵부터 727년까지 여행했다.

② X 해설 틀리다. 선덕여왕에게 황룡사 구층 목탑을 세우자고 건의한 승려는 자장이다. 탑은 643년에 공사를 시작해 645년에 완성되었다.

③ X 해설 틀리다. 「무애가」를 부르며 백성에게 불교를 널리 알린 승려는 원효다.

④ O 해설 맞다. (가)는 원광이다. 진평왕이 수에 군사를 청하는 글인 걸사표를 짓게 하자, 승려로서 맞지 않는 일이지만 왕의 땅에 사니 따르겠다고 답한 사람이 원광이다. 원광은 화랑 귀산과 추항에게 사군이충(충성으로 임금을 섬김) 등 세속 5계를 일러 주었다.

⑤ X 해설 틀리다. 개경(송악)을 좋은 땅으로 풀이한 『송악명당기』를 쓴 사람은 신라 말의 승려 도선이다. 도선은 풍수지리설을 널리 퍼뜨렸다.

5 고대 · 백제의 성립과 전성 정답 ⑤

① X 해설 틀리다. (가) 사비 천도(538)가 가장 늦은 일이라 맨 앞에 올 수 없다. 실제 순서는 (다) 평양성 공격(371) → (나) 불교 수용(384) → (가) 사비 천도(538)다.

5 해설 계속 정답 ⑤

② X 해설 틀리다. (가) 사비 천도는 성왕 때인 538년의 일로 셋 가운데 가장 늦다. 맨 앞에 오는 것은 371년 근초고왕의 평양성 공격인 (다)다.

③ X 해설 틀리다. (나) 마라난타를 통한 불교 수용은 384년 침류왕 때로, 371년의 평양성 공격((다))보다 늦다. 또 (가) 사비 천도(538)는 맨 끝이다.

④ X 해설 틀리다. (나) 불교 수용(384)보다 (다) 평양성 공격(371)이 먼저다. (가) 사비 천도(538)가 마지막인 것만 맞다.

⑤ O 해설 맞다. (다) 근초고왕이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고 황해도 일부를 차지한 것은 371년, (나) 침류왕이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맞아 불교를 받아들인 것은 384년, (가) 성왕이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꾼 것은 538년이다.

6 고대 · 신라의 성장 정답 ③

① X 해설 틀리다. 군사 일을 맡는 병부를 두고(517), 귀족 회의를 이끄는 상대등을 처음 둔(531) 왕은 법흥왕이다.

② X 해설 틀리다. 백제 비유왕과 동맹(나제 동맹, 433)을 맺은 신라 왕은 눌지왕이다.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에 함께 맞서기 위한 동맹이었다.

③ O 해설 맞다. 밑줄 그은 왕은 지증왕이다. 나라 이름을 「신라」로 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쓰게 한 일, 그 전해에 순장을 금지한 일이 단서다. 지증왕은 512년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울릉도)을 복속시켰다.

④ X 해설 틀리다. 매소성 전투(675)에서 당군을 크게 물리친 것은 문무왕 때의 일이다. 이 승리로 나당 전쟁의 흐름이 신라 쪽으로 기울었다.

⑤ X 해설 틀리다. 681년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귀족 세력을 숙청해 왕권을 강하게 만든 왕은 신문왕이다.

7 고대 · 통일 신라의 문화유산 정답 ⑤

① X 해설 틀리다. 사진은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이다. 위층 기단의 네 귀퉁이에 사자 네 마리가 기둥처럼 탑을 받치고 있는 통일 신라의 탑이다.

② X 해설 틀리다. 사진은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이다. 나무로 만든 탑의 모양을 돌로 옮긴 백제의 석탑으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지금까지 남아 있는 백제 석탑이다.

7 해설 계속 정답 ⑤

③ X 해설 틀리다. 사진은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다.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신라의 탑으로, 634년 선덕여왕 때 분황사를 세울 무렵 만든 것으로 본다.

④ X 해설 틀리다. 사진은 벽돌로 쌓은 전탑인 칠곡 송림사 오층 전탑이다. 통일 신라 때 세워졌고, 우리나라 전탑 가운데 본래 모습을 잘 간직한 탑이다.

⑤ O 해설 맞다. (가)는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이다. 「무영탑」이라는 다른 이름, 불국사 대웅전 앞뜰 서쪽에 서 있다는 위치, 2층 기단, 1966년 수리 때 탑 안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나왔다는 설명이 단서다. 사진 ⑤가 이 탑이다.

8 고대 · 신라의 삼국 통일 정답 ①

① O 해설 맞다. 자료는 고구려가 멸망한(668) 직후의 상황이다. 당 황제가 포로가 된 보장왕과 연개소문의 아들들(남산·남생·남건)을 처리하고,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두었다는 내용이 단서다. 그 뒤 고구려 왕족 안승이 신라로 와서, 신라는 674년 그를 보덕국왕으로 삼았다.

② X 해설 틀리다.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크게 무찌른 것은 612년의 일로, 고구려 멸망보다 훨씬 앞선다.

③ X 해설 틀리다. 김춘추가 당에 가서 군사 동맹(나당 동맹)을 맺은 것은 648년으로, 백제와 고구려가 망하기 전의 일이다.

④ X 해설 틀리다.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 신라의 대야성을 빼앗은 것은 642년의 일로, 고구려 멸망보다 앞선다.

⑤ X 해설 틀리다.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세운 것은 642년의 일이다.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이다.

9 고대 · 발해의 건국과 발전 정답 ②

① X 해설 틀리다. (가)는 발해 건국(698)부터 무왕 즉위(719)까지로, 대조영(고왕)이 나라를 세우고 기틀을 다지던 때다. 등주 공격(732)은 무왕 때의 일이다.

② O 해설 맞다. 자료는 발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한 사건이다. 「개원 20년」(732)이라는 연도, 발해가 군사를 이끌고 등주를 습격해 자사를 죽였다는 내용, 당이 신라에 발해를 치게 했다는 내용이 단서다. 이는 무왕 때(재위 719~737) 장문휴가 이끈 공격으로, 무왕 즉위와 문왕의 상경 천도 사이인 (나)에 들어간다.

9 해설 계속 정답 ②

③ X 해설 틀리다. (다)는 문왕의 상경 천도(756년 무렵)부터 선왕 즉위(818)까지다. 이때는 당과 사이가 좋아져 당의 제도를 받아들이던 시기다.

④ X 해설 틀리다. (라)는 선왕 즉위(818)부터 고려 건국(918)까지다. 선왕 때 발해는 땅을 크게 넓혀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⑤ X 해설 틀리다. (마)는 고려 건국(918)부터 발해 멸망(926)까지로, 발해가 거란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던 때다.

10 고려 · 벽란도와 대외 무역 정답 ④

① X 해설 틀리다. 개성 상인인 송상이 전국 곳곳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둔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② X 해설 틀리다. 감자와 고구마 같은 구황 작물이 재배된 것은 조선 후기다. 고구마는 18세기 조엄이 일본에서 들여왔고, 감자는 19세기 전반에 들어왔다.

③ X 해설 틀리다.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은 신라 지증왕 때(509) 수도 경주에 설치되었다.

④ O 해설 맞다. 자료는 고려 숙종 때(1102) 동전 해동통보를 만들어 나누어 준 일이다. 「해동통보」, 「재추」, 「서북의 양조(송·요)」라는 표현이 단서다. 고려 시대에는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가 송·일본·아라비아 상인까지 드나드는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했다.

⑤ X 해설 틀리다. 민간에게 광산 개발을 허용하고 세금을 거둔 설점수세제는 조선 후기 효종 때(1651) 시행되었다.

11 고려 · 광종의 개혁 정답 ②

① X 해설 과전법은 고려 말 1391년(공양왕 3)에 신진 사대부가 만든 토지 제도다. 관리에게 경기 지역 땅에서만 세금을 거둘 권리를 나누어 주었다. (나)의 998년보다 훨씬 뒤의 일이다.

② O 해설 (가)는 「처음으로 역분전을 정하였다」, 「통일할 때」라는 말로 보아 태조 왕건이 940년에 정한 역분전이다. (나)는 제1과에 전지 100결·시지 70결, 제18과에 전지 20결, 그 아래에 17결을 준다는 내용이라 998년(목종 1)의 개정 전시과다. 그 사이인 958년(광종 9)에 후주에서 온 쌍기의 건의로 처음 과거를 치렀으므로 옳다.

11 해설 계속 정답 ②

③ X 해설 전민변정도감은 권세가가 빼앗은 땅과 억지로 노비로 만든 사람을 되돌려 놓으려고 둔 임시 관청이다. 신돈이 책임자가 된 것은 공민왕 때인 1366년이다. (나)보다 한참 뒤다.

④ X 해설 만적은 최충헌의 종이었다. 1198년(신종 1) 개경에서 노비들을 모아 신분 해방을 꾀했으나 미리 들켜 실패했다. 무신 집권기의 일로, (나)보다 200년 뒤다.

⑤ X 해설 봉사 10조는 최충헌이 이의민을 없애고 권력을 잡은 뒤 1196년(명종 26) 왕에게 올린 개혁안이다. 무신 집권기의 일이라 (가)·(나) 사이가 아니다.

12 고대 · 후삼국의 성립 정답 ④

① X 해설 일리천 전투는 936년 왕건이 후백제 신검의 군대를 크게 무찌른 싸움이다. 이 승리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다. 궁예가 아니라 왕건의 일이다.

② X 해설 가지산문은 신라 말 도의를 개창조로 하는 선종 산문으로, 장흥 보림사를 중심으로 자랐다. 궁예와 관계가 없는 신라 말 불교의 일이다.

③ X 해설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주고(687) 녹읍을 없앤(689) 것은 통일 신라 신문왕이다. 귀족의 경제 기반을 약하게 하여 왕권을 키우려는 정책이었다.

④ O 해설 (가)는 궁예다. 북원(원주)의 양길 밑에 있다가 그를 배신하고 독립했고, 태조(왕건)가 나주를 차지한 뒤 돌아와 보고한 윗사람이라는 점이 단서다. 궁예는 904년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바꾸면서 광평성을 최고 기구로 하는 여러 관청을 두었으므로 옳다.

⑤ X 해설 「정계」와 「계백료서」는 고려 태조 왕건이 신하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적어 내린 글이다. 궁예가 아니라 왕건의 일이다.

13 고려 · 고려의 유학과 교육 정답 ①

① O 해설 자료는 문헌공도 같은 사학이 커져 관학이 약해지자 고려가 펼친 관학 진흥책을 묻는다. 숙종이 서적포를 두었고(1101), 예종은 1109년 국자감에 7재라는 전문 강좌를 열어 관학을 살리려 했으므로 옳다.

② X 해설 사액 서원은 나라가 이름을 내리고 책·노비·땅을 준 서원이다. 1550년(명종 5) 백운동 서원에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을 내린 것이 처음으로, 조선의 일이다.

13 해설 계속 정답 ①

③ X 해설 독서삼품과는 통일 신라 원성왕이 788년에 만든 관리 선발 제도다. 유교 경전을 읽은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어 관리를 뽑았다.

④ X 해설 초계문신제는 조선 정조가 1781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규장각에서 젊은 문신을 다시 가르치고 시험을 보게 했다.

⑤ X 해설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두고 교장(속장경)을 펴낸 것은 고려 의천이 이끈 불교 경전 정리 사업이다. 고려의 일이긴 하지만 관학을 살리려는 정책이 아니다.

14 고려 · 무신 정변 정답 ④

① X 해설 서얼(양반의 첩에게서 난 자손)이 높은 벼슬길을 열어 달라고 한 통청 운동은 조선 후기에 활발했다. 영조는 1772년 서얼도 청요직에 쓰겠다고 밝혔다.

② X 해설 청해진은 828년 장보고가 완도에 세운 해상 기지다. 이곳을 거점으로 당·신라·일본을 잇는 무역이 이루어졌다. 통일 신라 말의 일이다.

③ X 해설 「정감록」은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새 왕조를 연다는 내용의 예언서다. 조선 후기에 사회가 흔들리면서 민간에 널리 퍼졌다.

④ O 해설 자료의 이의방·이고는 1170년 무신 정변을 일으킨 무신이고, 조위총은 1174년 서경에서 무신 정권에 맞서 일어났으며, 정방은 1225년 최우가 자기 집에 둔 인사 기구다. 모두 무신 집권기다. 이때 1176년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봉기하는 등 하층민의 봉기가 이어졌으므로 옳다.

⑤ X 해설 역관 같은 중인들이 시사(詩社)를 만들어 시를 짓는 위항(여항) 문학은 조선 후기에 꽃피었다. 송석원시사가 대표적이다.

15 고려 · 몽골의 침입과 항쟁 정답 ①

① O 해설 (가)는 몽골이다. 박서가 김중온·김경손과 함께 성을 지킨 것은 1231년 몽골의 첫 침입 때 귀주성 싸움이고, 송문주는 귀주에서 공을 세운 뒤 죽주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 고려는 1232년 최우의 주도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오래 맞섰으므로 옳다.

② X 해설 광군은 947년(정종 2)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 만든 군대다. 몽골이 아니라 거란에 대한 대응이다.

③ X 해설 화통도감은 1377년(우왕 3) 최무선의 건의로 세운 화약·화포 제조 관청이다. 왜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15 해설 계속 정답 ①

④ X 해설 명이 철령위를 세워 철령 북쪽 땅을 가져가겠다고 하자, 1388년 우왕과 최영이 요동 정벌을 추진했다. 명에 대한 대응이며,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중단되었다.

⑤ X 해설 별무반은 1104년(숙종 9) 윤관의 건의로 만든 특수 부대다.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보군, 승병인 항마군으로 이루어졌고 여진 정벌을 위한 것이었다.

16 고려 · 고려의 공예와 회화 정답 ⑤

① O 해설 ①은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진 미륵)이다. 고려 초 968년 무렵 만든 거대한 돌부처로, 머리와 손이 크게 표현된 고려 지방 불상의 특징을 보여 준다. 고려의 유산이 맞다.

② O 해설 ②는 나전 국화넝쿨무늬 합이다. 조개껍데기(자개)를 잘라 국화와 넝쿨 무늬를 빽빽하게 붙인 고려 나전 칠기다. 고려의 유산이 맞다.

③ O 해설 ③은 수월관음도다. 물가 바위에 앉은 관음보살과 그를 찾아온 선재동자를 그린 불화로, 고려 후기에 많이 그려졌다. 고려의 유산이 맞다.

④ O 해설 ④는 개성 경천사지 십층 석탑이다. 1348년(충목왕 4) 원의 영향을 받아 대리석으로 세운 탑이며,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있다. 고려의 유산이 맞다.

⑤ X 해설 (가)는 고려다. 강진에서 만든 상감 청자, 청자 상감 모란무늬 항아리가 단서다. ⑤는 조선 후기 화가 김득신의 「파적도」로, 고양이가 병아리를 물고 달아나자 놀란 사람들을 그린 풍속화다. 고려의 유산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것이다.

17 고려 · 원 간섭기 정답 ⑤

① X 해설 「불씨잡변」은 정도전이 성리학의 입장에서 불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 책이다. 고려 말·조선 초의 일로, 이제현이 아니다.

② X 해설 정혜결사는 무신 집권기에 지눌이 시작한 불교 개혁 운동이다. 승려들이 수행에 힘쓰자고 모였고, 뒤에 송광산 길상사가 수선사로 이름이 바뀌어 중심이 되었다.

③ X 해설 「청방인문표」는 인질로 잡혀간 사람을 풀어 달라고 청한 글이다. 「역옹패설」을 지은 이제현의 활동으로 꼽히는 것이 아니다.

17 해설 계속 정답 ⑤

④ X 해설 「동명왕편」은 이규보가 1193년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주몽)의 이야기를 긴 시로 지은 것이다. 고구려를 잇는다는 생각을 담았다. 이제현이 아니라 이규보의 작품이다.

⑤ O 해설 주인공은 이제현이다. 「역옹패설」을 지었다는 것과 원의 사신과 몽골말로 대화한 유청신 일화가 단서다. 이제현은 1314년 충선왕이 원의 수도 연경에 세운 만권당에 가서 조맹부·요수 같은 원의 학자들과 사귀었으므로 옳다.

18 고려 ·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 정답 ①

① O 해설 (가)는 안동이다. 하회마을(하회별신굿탈놀이), 봉정사 극락전, 퇴계 이황의 도산서원,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공민왕과 노국 공주가 피란한 곳이 단서다. 930년 왕건이 고창(지금의 안동)에서 견훤을 크게 이겼으므로 옳다.

② X 해설 묘청은 1135년 서경(지금의 평양)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 이름을 대위라 했다. 안동이 아니라 서경의 일이다.

③ X 해설 「직지심체요절」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이다. 지금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청주의 일이다.

④ X 해설 1170년 정중부 등 무신들은 의종이 놀러 간 개경 부근 보현원에서 문신들을 죽이고 정변을 일으켰다. 안동이 아니다.

⑤ X 해설 1380년 이성계가 왜구를 크게 무찌른 황산 대첩은 지금의 남원 운봉 근처에서 벌어졌다. 안동이 아니다.

19 조선전기 · 조선의 건국과 태조 정답 ④

① X 해설 훈민정음은 세종이 1443년에 만들고 1446년에 반포한 우리 글자다. 세종 때의 일이다.

② X 해설 금위영은 숙종 때인 1682년 수도와 왕을 지키려고 만든 군영이다. 5군영 가운데 가장 늦게 생겼다.

③ X 해설 「경국대전」은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 성종 때 완성한 조선의 기본 법전이다. 태조 때가 아니다.

④ O 해설 밑줄 그은 임금은 조선 태조 이성계다. 고려 말 이야기, 도읍을 옮길 땅으로 계룡과 무악을 살폈다는 점, 좌시중 조준·우시중 김사형이 단서다. 태조 재위 중인 1398년 세자 자리를 두고 이방원이 정도전과 세자 방석을 없앤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으므로 옳다.

19 해설 계속 정답 ④

⑤ X 해설 성삼문 등 사육신이 상왕(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다 처형된 것은 1456년 세조 때의 일이다.

20 조선전기 · 조선의 중앙 정치 제도 정답 ②

① X 해설 수도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맡은 곳은 한성부다. 비변사의 일이 아니다.

② O 해설 (가)는 비변사다. 비국·주사라고 불렸다는 점, 처음에 변방의 국방 문제를 의논하던 임시 기구였다가 상설 기관이 되었다는 점이 단서다. 비변사는 임진왜란 뒤 나라의 최고 기구가 되었지만, 흥선 대원군이 권력을 잡은 뒤 1864~1865년 기능을 의정부로 넘기고 폐지되었으므로 옳다.

③ X 해설 왕의 명령을 받아 반역 같은 큰 죄를 다룬 왕 직속 사법 기구는 의금부다.

④ X 해설 5품 이하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하는 서경권은 사헌부와 사간원(대간)이 가졌다. 비변사의 권한이 아니다.

⑤ X 해설 도승지를 우두머리로 6명의 승지를 둔 곳은 왕명을 전하고 받는 승정원이다.

21 조선전기 · 4대 사화 정답 ③

① X 해설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사초에 실린 것이 문제가 되어 일어난 사건은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다. 김일손 등 김종직의 제자인 사림이 크게 화를 입었다.

② X 해설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가 사약을 받고 죽은 일을 연산군이 들추어 일으킨 사건은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다. 이 사건과는 40년 넘게 떨어져 있다.

③ O 해설 자료의 「대윤과 소윤」, 「윤임 등 대윤 세력이 탄압받은」, 이언적이 뒤에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유배되었다는 말로 보아 「이 사건」은 1545년(명종 즉위년) 을사사화다. 인종의 외삼촌 윤임(대윤)과 명종의 외삼촌 윤원형(소윤)이 다툰 일이므로, 왕실 외척끼리의 권력 다툼이 맞다.

④ X 해설 진성 대군이 왕(중종)이 된 것은 1506년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의 결과다. 사화가 아니라 신하들이 왕을 바꾼 반정이다.

⑤ X 해설 조광조가 중종반정 공신 가운데 공이 부풀려진 사람의 공신 자격을 빼자고(위훈 삭제) 한 것은 중종 때다. 이에 반발한 훈구 세력이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를 일으켰다.

22 조선전기 ·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정답 ⑤

① X 해설 정문부가 함경도 길주 일대에서 의병을 이끌고 일본군을 물리친 것은 1592년 임진왜란 때다(북관 대첩). (가)의 1624년보다 앞선다.

② X 해설 포수·사수·살수의 삼수병으로 이루어진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인 1593년(선조 26)에 만들어졌다. (가)보다 앞선 일이다.

③ X 해설 영창 대군이 죽임을 당하고(1614) 인목 대비가 서궁에 갇힌(1618) 것은 광해군 때다. 1613년 계축옥사에서 비롯된 일로, (가)보다 앞선다.

④ X 해설 이덕형이 명에 구원병을 청하러 간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이다. (가)보다 30년 넘게 앞선다.

⑤ O 해설 (가)는 「역적 이괄이 군사를 일으켰」고 왕이 남쪽으로 피란했다는 내용이라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이다. (나)는 소현 세자가 심양에 들어온 지 5년이 되었다는 말로 보아 1637년에 인질로 끌려간 지 5년 뒤인 1640년대 초다. 그 사이인 1636~1637년 병자호란 때 김상헌 등이 남한산성에서 청과의 화의를 반대하고 끝까지 싸우자고 했으므로 옳다.

23 조선후기 · 조선 후기의 상업과 장시 정답 ③

① X 해설 계해약조는 1443년(세종 25) 대마도주와 맺은 약속으로, 일본 배가 1년에 오갈 수 있는 수(세견선 50척) 등을 정했다. 시전 상인의 횡포와는 관계가 없다.

② X 해설 오가작통법은 다섯 집을 하나로 묶어 서로 살피게 한 제도로, 『경국대전』에 실렸고 숙종 때(1675) 더 강화되었다. 주민을 관리하려는 제도이지 상업 정책이 아니다.

③ O 해설 자료는 좌의정 채제공이 무뢰배(시전 상인)가 「난전」이라며 다른 상인을 잡아가 물건 값이 치솟는다고 아뢴 내용이다.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 횡포를 말한 것이므로, 1791년(정조 15) 육의전을 뺀 시전의 금난전권을 없앤 신해통공의 배경을 조사하는 활동이 알맞다.

④ X 해설 토지 1결마다 쌀 2두의 결작을 걷게 한 것은 1750년(영조 26) 균역법 때다. 군포를 1필로 줄여 생긴 모자란 재정을 메우려는 것이었다.

⑤ X 해설 풍년과 흉년의 정도를 9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다르게 걷은 것은 세종 때 만든 연분 9등법이다. 조선 전기의 세금 제도다.

24 조선후기 · 붕당 정치의 변질과 환국 정답 ④

① X 해설 동학을 만든 최제우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는 죄로 처형된 것은 1864년(고종 1)이다. 흥선 대원군이 막 집권했을 때다.

② X 해설 변급(1654)과 신류(1658)가 조총 부대를 이끌고 청을 도와 러시아를 친 나선 정벌은 효종 때다.

③ X 해설 국왕의 친위 부대 장용영은 정조가 왕권을 키우려고 만든 군영이다. 장용영이라는 이름은 1788년(정조 12)부터 쓰였다. 숙종 때가 아니다.

④ O 해설 자료의 비석은 1712년(숙종 38) 청의 목극등과 조선 관리들이 세운 백두산정계비다.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삼았다. 이 비를 세운 숙종 때 경신환국(1680), 기사환국(1689), 갑술환국(1694)처럼 집권 붕당이 갑자기 바뀌는 환국이 여러 번 일어났으므로 옳다.

⑤ X 해설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크게 화를 입은 기축옥사는 1589년(선조 22)이다. 이 일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는 계기가 되었다.

25 조선후기 · 국학 연구와 지리서 정답 ②

① X 해설 기대승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단칠정 논쟁을 벌인 사람은 퇴계 이황이다. 16세기 성리학의 대표적인 논쟁이다.

② O 해설 자료에서 제주도에 유배되었고, 독창적인 서체(추사체)로 유명하며, 유배지에서 「세한도」를 그렸다는 말로 보아 「이 인물」은 추사 김정희다. 김정희는 북한산 비석의 글자를 직접 살펴, 그때까지 무학 대사의 비 등으로 알려졌던 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③ X 해설 양명학을 깊이 연구하고 강화도에서 제자를 길러 강화학파를 연 사람은 하곡 정제두다. 18세기 초의 일이다.

④ X 해설 청에서 쓰던 서양식 역법인 시헌력을 들여오자고 건의한 사람은 김육이다. 시헌력은 효종 때(1653) 시행되었다.

⑤ X 해설 『열하일기』를 쓴 사람은 연암 박지원이다. 청에 다녀온 뒤 수레와 배를 써서 상공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했다.

26 조선후기 · 세도 정치 정답 ②

① O 해설 담배는 17세기 광해군 때 들어온 것으로 보이며, 조선 후기에 인삼과 함께 많이 기른 상품 작물이 되었다. 순조 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② X 해설 대화 속 「궁방과 중앙 관청에 소속된 노비를 모두 양민으로 삼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라」는 명은 1801년(순조 1)의 공노비 해방이고, 「선왕(정조)이 노비 추쇄관을 혁파」했다는 말도 이를 뒷받침한다. 염포는 세종 때 일본에 열어 준 3포 가운데 하나인데, 1510년(중종 5) 삼포왜란 뒤 닫혔다. 순조 때에는 염포 왜관에서 교역하는 모습을 볼 수 없으므로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

③ O 해설 돈을 받고 소설책을 빌려주는 세책가(세책점)는 조선 후기에 한글 소설이 널리 읽히면서 생겼다. 춘향전 같은 한글 소설을 빌려 읽는 모습은 순조 때 볼 수 있다.

④ O 해설 공인은 1608년 대동법을 시행한 뒤 관청에 필요한 물건을 사서 납품한 상인이다. 순조 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⑤ O 해설 송파장은 조선 후기에 크게 번성한 장시이고, 그곳 상인들의 후원으로 송파 산대놀이가 펼쳐졌다. 순조 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27 조선후기 · 임술 농민 봉기 정답 ⑤

① X 해설 어영청을 중심으로 군대를 키워 청을 치려 한 북벌은 효종 때(1649~1659)의 일이다.

② X 해설 윤지충이 어머니 제사를 천주교식으로 치렀다가 처형된 신해박해는 1791년(정조 15)이다. 세도 정치가 시작되기 전이다.

③ X 해설 이필제가 경상도 영해에서 난을 일으킨 것은 1871년(고종 8)이다. 흥선 대원군이 집권한 때로, 세도 정치가 끝난 뒤다.

④ X 해설 경복궁을 다시 짓는 데 드는 돈을 마련하려고 당백전을 찍은 것은 1866년(고종 3) 흥선 대원군 때다.

⑤ O 해설 자료의 「안동 김씨 등 외척 세력이 세 왕에 걸쳐 60여 년 동안 권력을 잡은」 시기는 순조·헌종·철종 때의 세도 정치(1800~1863)다. 철종 때인 1862년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나자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으려고 삼정이정청을 두었으므로 옳다.

28 근대 ·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정답 ③

① X 해설 프랑스군이 강화도 외규장각에서 의궤 등 책을 빼앗아 간 것은 1866년 병인양요 때다. 신미양요(1871)보다 앞선다.

② X 해설 홍경래 등이 평안도에서 난을 일으켜 정주성을 차지한 것은 1811년(순조 11)이다. 신미양요보다 60년 앞선다.

③ O 해설 자료의 「미군이 강화도를 침략」, 어재연 장군이 「광성보에서 항전」했다는 말로 보아 (가)는 1871년(고종 8) 신미양요다. 미군이 물러간 뒤 흥선 대원군이 서양과 화친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아 종로를 비롯한 전국 여러 곳에 척화비를 세웠으므로 옳다.

④ X 해설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통상을 요구하다 불탄 것은 1866년이다. 이 사건이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었으니 (가)보다 앞선다.

⑤ X 해설 황사영이 프랑스 군대를 불러 달라는 백서를 쓴 것은 1801년(순조 1) 신유박해 때다.

29 근대 · 임오군란 정답 ④

① X 해설 영국이 러시아를 막는다며 거문도를 불법으로 차지한 것은 1885~1887년이다. (나)의 1883년보다 뒤다.

② X 해설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흥선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파헤치려 한 것은 1868년이다. (가)의 1876년보다 앞선다.

③ X 해설 러시아가 부산 절영도(지금의 영도)를 빌려 달라고 요구한 것은 대한 제국 시기인 1890년대 후반이다. 독립 협회 등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O 해설 (가)는 부산항에서 일본인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10리로 정한 1876년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다. (나)는 영국 사람이 100리 안에서 자유롭게 다니고 여행증명서로 내지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한 1883년 조영 수호 통상 조약이다. 그 사이인 1882년 임오군란 뒤 청 상인이 조선 내륙에서 장사할 길을 연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맺어졌으므로 옳다.

⑤ X 해설 청과 일본이 조선에서 함께 군대를 빼기로 한 톈진 조약은 갑신정변 뒤인 1885년에 맺어졌다. (나)보다 뒤다.

30 통합 · 인류무형문화유산 정답 ①

① O 해설 자료는 궁중 무용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 모양의 가면을 쓰고, 다섯 사람이 오방(동서남북·중앙)을 뜻하는 다섯 색 옷을 입고 추며,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된 춤이라 (가)는 처용무다. 처용무는 신라 헌강왕 때 처용이 춤과 노래로 역신(전염병 귀신)을 물리쳤다는 처용 설화를 바탕으로 했으므로 옳다.

② X 해설 종묘에서 역대 왕과 왕비에게 제사를 올리는 의식은 종묘 제례이고, 이때 연주하는 음악이 종묘 제례악이다.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올랐다.

③ X 해설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모습을 다시 재현하는 불교 의식은 영산재다. 처용무와 같은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올랐다.

④ X 해설 소리꾼이 노래(창), 말(아니리), 몸짓(너름새)을 섞어 이야기를 풀어 가는 것은 판소리다. 200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올랐다.

⑤ X 해설 양반과 파계승(계율을 어긴 승려)을 풍자하는 내용은 봉산 탈춤 같은 탈춤(탈놀이)이다. 서민들이 즐긴 놀이이며 궁중 무용이 아니다.

31 근대 · 을미개혁 정답 ③

① X 해설 양전 사업을 벌이고 땅 주인에게 지계(토지 소유 증명서)를 준 것은 대한 제국의 광무개혁이다. 1901년 지계아문을 세워 지계를 발급하기 시작했으므로, 1895년의 을미개혁보다 뒤의 일이다.

② X 해설 전국 8도를 23부로 나눈 것은 제2차 갑오개혁(1895) 때다. 을미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시행된 개혁이라, 국모 시해 사건 뒤에 추진된 을미개혁의 내용이 아니다.

③ O 해설 자료에 「국모 시해 사건(을미사변, 1895년 8월) 이후 김홍집 내각」, 「태양력 시행」, 「건양 연호」가 나오므로 밑줄 그은 개혁은 을미개혁이다. 을미개혁 때 군대를 고쳐 서울에는 친위대, 지방에는 진위대를 두었으므로 옳다.

④ X 해설 공사 노비법을 없애고 과부가 다시 결혼할 수 있게 한 것은 제1차 갑오개혁(1894) 때 군국기무처가 한 일이다. 신분제를 없앤 개혁으로, 을미개혁보다 앞선다.

⑤ X 해설 교육 입국 조서는 1895년 2월(음력) 고종이 발표한 것으로 제2차 갑오개혁에 속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성 사범 학교 관제 등 근대 학교 제도가 마련되었다.

32 근대 · 개화 정책과 개화파 정답 ①

① O 해설 자료의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기구」, 「영선사 파견 건의」, 「기기창」으로 보아 (가)는 1880년에 세운 통리기무아문이다. 통리기무아문은 1881년 일본식 훈련을 받는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만들었으므로 옳다.

② X 해설 원수부는 1899년 대한 제국의 고종이 군대를 직접 지휘하려고 세운 최고 군 통수 기관이다. 광무개혁 때의 일이다.

③ X 해설 『대전통편』은 1785년 정조 때 『경국대전』과 『속대전』 등을 하나로 묶어 펴낸 법전이다. 조선 후기의 일이다.

④ X 해설 신문지법은 1907년 통감부의 압력 속에 이완용 내각이 만든 언론 통제법이다. 항일 언론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

⑤ X 해설 서당 규칙은 1918년 조선 총독부가 민족 교육을 하던 서당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만든 규정이다. 일제 강점기 무단 통치 때의 일이다.

33 근대 · 근대 언론 정답 ④

① X 해설 박문국은 1883년 세운 인쇄·출판 기관으로, 이곳에서 한국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를 냈다. 『대한매일신보』와는 관계가 없다.

② X 해설 브나로드 운동은 1931년부터 『동아일보』가 벌인 농촌 계몽·문맹 퇴치 운동이다. 일제 강점기의 일이다.

③ X 해설 여권통문은 1898년 서울 북촌 여성들이 여성의 교육·직업 권리를 요구하며 낸 글로, 『황성신문』에 처음 실렸다.

④ O 해설 자료에 「발행인 배설(베델)」, 「박은식과 양기탁 등이 발간에 참여」가 나오므로 (가)는 『대한매일신보』(1904년 창간)다. 이 신문은 1907년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나자 기사와 모금으로 이를 적극 도왔으므로 옳다.

⑤ X 해설 순한글로 낸 최초의 신문은 1896년 서재필이 창간한 『독립신문』이다. 『독립신문』은 영문판도 함께 냈다.

34 근대 · 독립 협회와 만민 공동회 정답 ③

① X 해설 1907년 고종 강제 퇴위에 맞서 반대 운동을 벌인 단체는 대한 자강회다. 일제는 이 일을 구실로 대한 자강회를 해산시켰다.

② X 해설 1904년 일제가 황무지를 개간할 권리를 요구하자 이를 막아 낸 단체는 보안회다. 독립 협회는 이보다 앞선 1898년에 해산되었다.

③ O 해설 자료에 「독립문 주춧돌 놓는 예식」, 「회장 안경수」가 나오므로 (가)는 독립 협회다. 독립 협회는 1898년 관민 공동회에서 헌의 6조를 결의하고, 중추원을 고쳐 의회처럼 만드는 일을 추진했으므로 옳다.

④ X 해설 대성 학교는 1908년 안창호가 평양에 세운 학교로, 비밀 결사인 신민회의 교육 활동이다.

⑤ X 해설 독립 공채를 발행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은 것은 1919년 상하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 정부다.

35 근대 · 열강의 경제 침탈 정답 ⑤

① X 해설 군국기무처는 1894년 제1차 갑오개혁을 이끈 기구다. 1905년 화폐 정리 사업보다 10년 넘게 앞선 일이라 탐구 주제로 맞지 않는다.

② X 해설 당오전은 1883년 재정난을 메우려고 발행한 화폐다. 이름값보다 실제 가치가 낮아 물가가 크게 올랐다. 화폐 정리 사업과 시기·성격이 다르다.

③ X 해설 삼국 간섭은 1895년 청일 전쟁 뒤 러시아·프랑스·독일이 일본에게 랴오둥반도를 청에 돌려주라고 압박한 일이다. 화폐 정리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

④ X 해설 대한 광복회는 1915년 박상진 등이 공화정을 목표로 만든 무장 독립운동 단체다. 일제 강점기의 일이다.

⑤ O 해설 자료의 「메가타 다네타로 주도」, 「백동화와 엽전을 일본 제일은행권으로 교환」으로 보아 밑줄 그은 사업은 1905년의 화폐 정리 사업이다.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온 것은 1904년 제1차 한일 협약 때문이므로, 그 협약의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알맞은 탐구 활동이다.

36 일제 ·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기지 정답 ①

① O 해설 자료에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가)」, 「1937년 스탈린이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가 나오므로 (가)는 연해주다. 연해주에서는 1911년 권업회가 조직되어 『권업신문』을 펴냈으므로 옳다.

36 해설 계속 정답 ①

② X 해설 경학사는 1911년 신민회 회원들이 서간도 삼원보에 세운 한인 자치 기구다. 연해주가 아니라 서간도의 일이다.

③ X 해설 2·8 독립 선언은 1919년 일본 도쿄에서 조선 유학생들이 발표했다. 3·1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④ X 해설 대조선 국민 군단은 1914년 박용만이 미국 하와이에서 만든 독립군 양성 단체다.

⑤ X 해설 서전서숙(1906, 이상설)과 명동 학교(1908, 김약연 등)는 북간도 용정·명동촌에 세워진 민족 학교다.

37 근대 · 의열 투쟁과 안중근 정답 ②

① X 해설 1909년 12월 명동 성당 앞에서 매국노 이완용을 칼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사람은 이재명이다.

② O 해설 자료에 「뤼순 감옥」, 「동양 평화론 집필」, 「원고를 완성하지 못하고」가 나오므로 (가)는 안중근이다. 안중근은 1909년 10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으므로 옳다.

③ X 해설 1928년 대만 타이중에서 일본 왕족이자 육군 대장인 구니노미야를 독검으로 공격한 사람은 조명하다.

④ X 해설 19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친일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처단한 사람은 장인환과 전명운이다.

⑤ X 해설 1919년 9월 서울역(당시 남대문역)에서 새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사람은 강우규다.

38 일제 · 1910년대 무단 통치 정답 ⑤

① X 해설 육영 공원은 1886년 정부가 세운 근대식 관립 학교로, 헐버트 등 미국인 교사를 불러 양반 자제에게 영어와 신학문을 가르쳤다. 개항기의 일이다.

② X 해설 애국반은 1938년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 아래 10호 정도씩 묶어 만든 조직으로,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1930년대 후반 민족 말살 통치기의 일이다.

③ X 해설 조선 형평사는 1923년 경남 진주에서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고 만든 단체다. 1920년대 문화 통치기의 일이다.

④ X 해설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은 1926년 단성사에서 처음 상영되었다. 1920년대의 일이다.

38 해설 계속 정답 ⑤

⑤ O 해설 자료에 「조선 태형령을 시행한 시기」가 나오므로 밑줄 그은 시기는 헌병 경찰을 앞세운 1910년대 무단 통치기다. 1915년 경복궁에서 처음으로 조선 물산 공진회가 열렸으므로 옳다.

39 일제 · 물산 장려 운동 정답 ②

① X 해설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곡령을 내려 쌀과 콩이 일본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1889년이다. 개항기의 일이라 (가) 이전이다.

② O 해설 (가)는 회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회사령 폐지(1920), (나)는 조선 총독부 농촌 진흥 위원회 규정으로 농촌 진흥 운동을 시작한 1932년의 것이다.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회를 만든 것은 1920년이고, 회사령 폐지(4월)보다 뒤라 그 사이에 들어가므로 옳다.

③ X 해설 황국 중앙 총상회는 1898년 서울 시전 상인들이 외국 상인의 침투에 맞서 만든 단체다. 개항기의 일이라 (가) 이전이다.

④ X 해설 유상 매수·유상 분배 방식의 농지 개혁법은 1949년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었다. 광복 이후의 일이라 (나) 이후다.

⑤ X 해설 국가 총동원법은 일본이 1938년 만들어 조선에도 적용한 법으로, 사람과 물자를 전쟁에 강제로 끌어갔다. (나) 이후의 일이다.

40 일제 · 민립 대학 설립 운동 정답 ③

① X 해설 (가)는 1895년 한성 사범 학교 설립부터 1911년 제1차 조선 교육령까지의 시기다.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은 1919년 3·1 운동 뒤의 일이라 이 시기가 아니다.

② X 해설 (나)는 1911년 제1차 조선 교육령부터 1919년 3·1 운동까지, 무단 통치 시기다. 이때 일제는 한국인에게 낮은 수준의 실업 교육만 시키고 대학 설립은 허락하지 않았다.

③ O 해설 자료에 「민립 대학 한 곳을 세워 보고자」, 「이상재, 이승훈 등의 주창」, 「민립 대학 기성 준비회 조직」이 나오므로 1922년 민립 대학 설립 운동 때의 기사다. 이는 3·1 운동(1919)과 경성 제국 대학 개교(1924) 사이인 (다)에 해당한다.

40 해설 계속 정답 ③

④ X 해설 (라)는 1924년 경성 제국 대학 개교부터 1938년 제3차 조선 교육령까지의 시기다. 일제가 경성 제국 대학을 세운 것은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누그러뜨리려는 뜻도 있었으므로, 기사는 이보다 앞선다.

⑤ X 해설 (마)는 1938년 제3차 조선 교육령부터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까지의 시기다. 이때는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돌리고 민족 말살 정책을 펴던 때라, 민립 대학 운동과 맞지 않는다.

41 일제 · 농민·노동 운동 정답 ②

① X 해설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세워진 일제의 토지 수탈 회사다. 대한 제국 시기의 일이라 1929년 원산 총파업보다 20년쯤 앞선다.

② O 해설 (가)는 라이징 선 석유 회사 문평 공장의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때린 일에서 시작된 「일제 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 운동」이고, 일본·중국의 노동 단체까지 후원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1929년 원산 총파업이다. 강주룡은 1931년 평양 평원 고무 공장의 임금 깎기에 맞서 을밀대 지붕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였다. 원산 총파업 뒤의 일이므로 옳다.

③ X 해설 대한 천일 은행은 1899년 대한 제국 황실의 지원을 받아 세워진 민족 은행이다. 일제 강점 이전의 일이다.

④ X 해설 조선 노농 총동맹은 1924년에 만들어진 전국 단위의 노동자·농민 조직이다. 1927년에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나뉘었다. 원산 총파업보다 앞선다.

⑤ X 해설 암태도 소작 쟁의는 1923년부터 1924년까지 전라남도 신안 암태도의 소작인들이 지나치게 높은 소작료를 낮추라며 벌인 싸움이다. 원산 총파업보다 앞선다.

42 일제 ·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 정답 ③

① X 해설 광혜원은 1885년 미국 선교사 알렌의 건의로 세운 서양식 병원이다. 곧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일제 강점기가 아니라 개항기의 일이다.

② X 해설 우정총국은 1884년에 세운 근대 우편 관청이다. 개국 축하연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 문을 닫았다. 개항기의 일이다.

42 해설 계속 정답 ③

③ O 해설 (가)는 「일제 강점기 사회 및 문화의 변화」를 일상생활과 연결해 조사하는 과제의 한 칸이다. 백화점, 식민지 관광, 문화 주택처럼 모두 일제 강점기의 생활 모습이 들어가야 한다. 몸뻬는 일제가 중일 전쟁(1937) 뒤 전시 체제에서 여성들에게 입도록 강요한 일바지라서 알맞다.

④ X 해설 새마을 운동은 1970년 박정희 정부가 시작한 농촌 개발 운동으로, 근면·자조·협동을 내세웠다. 광복 뒤 현대의 일이다.

⑤ X 해설 컬러텔레비전 방송은 1980년에 시작되었다. 전두환 정부 때의 일로 일제 강점기와 관계가 없다.

43 일제 · 한국광복군 정답 ④

① X 해설 자유시 참변은 1921년 러시아 자유시(스보보드니)에서 대한 독립 군단이 러시아 적군에게 공격당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한국광복군(1940)보다 훨씬 앞선다.

② X 해설 영릉가 전투는 1932년 양세봉이 이끈 조선 혁명군이 중국 의용군과 함께 일본군을 이긴 싸움이다.

③ X 해설 봉오동 전투는 1920년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 등이 일본군을 크게 물리친 싸움이다.

④ O 해설 (가)는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만든 부대로, 총사령관이 지청천이고 영국군 요청으로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했으므로 한국광복군이다. 한국광복군은 미국 전략 정보국(OSS)과 손잡고 국내 진공 작전(독수리 작전)을 준비했으나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⑤ X 해설 쌍성보 전투는 1932년 지청천이 이끈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함께 벌인 한중 연합 작전이다. 지청천은 뒤에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 되지만, 이 싸움은 한국 독립군의 일이다.

44 일제 ·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 정답 ③

① O 해설 일제는 중일 전쟁 뒤 전쟁 비용을 모은다며 국방 헌금을 거두었고, 친일 부호들이 이에 앞장섰다. 지원병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의 모습으로 알맞다.

② O 해설 황국 신민 서사는 1937년에 만들어져 학교와 모임에서 외우도록 강요되었다. 같은 시기의 모습이다.

44 해설 계속 정답 ③

③ X 해설 밑줄 그은 「시기」는 일제가 중일 전쟁(1937)을 일으키고 침략을 넓히던 때로, 지원병 제도(1938)와 국민 총력 조선 연맹(1940)이 나오므로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전시 체제기다. 원각사는 1908년에 문을 연 근대식 극장이고, 이인직의 「은세계」도 그해 공연되었다. 대한 제국 시기의 일이라 이 시기와 맞지 않는다.

④ O 해설 일제는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라는 내선일체를 내세워 민족 말살 정책을 폈다. 일부 언론인은 이를 따르자는 글을 썼다. 같은 시기의 모습이다.

⑤ O 해설 1939년 국민 징용령으로 많은 조선인이 광산과 공장에 강제로 끌려갔다. 같은 시기의 모습이다.

45 통합 · 지역사 정답 ②

① X 해설 수양개 유적은 충청북도 단양에 있는 구석기 유적이다. 금강 중류가 아니라 남한강 가에 있다.

② O 해설 안내문 속 고장은 공주다. 남한에서 처음 발굴된 구석기 유적(석장리), 백제의 수도(웅진), 성종이 둔 12목의 하나, 충청 감영, 동학 농민군의 우금치 전투가 모두 공주를 가리킨다. 공주 송산리 고분군(지금의 무령왕릉과 왕릉원)의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 양식의 벽돌무덤이고, 일본에서 나는 금송으로 관을 만들어 남조·왜와의 교류를 보여 주므로 옳다.

③ X 해설 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 때 남원성에서 싸우다 죽은 군사와 백성을 함께 묻은 무덤이다. 전라북도 남원에 있다.

④ X 해설 만석보는 고부 군수 조병갑이 농민을 동원해 쌓고 물세를 거둔 저수지 둑이다. 1894년 고부 농민 봉기의 원인이 되었고,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에 있다.

⑤ X 해설 아우내 장터 만세 시위는 1919년 4월 1일 유관순이 주도한 3·1 운동이다. 지금의 충청남도 천안 병천에 있다.

46 현대 · 이승만 정부와 발췌·사사오입 개헌 정답 ⑤

① X 해설 애치슨 라인은 1950년 1월 미국 국무 장관 애치슨이 발표한 방위선으로, 한국이 빠져 있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일이다.

② X 해설 한일 기본 조약은 1965년 박정희 정부 때 맺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전쟁 뒤의 일이다.

46 해설 계속 정답 ⑤

③ X 해설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국보위)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뒤 전두환 등 신군부가 만든 기구다.

④ X 해설 김구·김규식은 1948년 4월 평양에 가서 남북 협상에 참여하며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막으려 했다. 6·25 전쟁 전의 일이다.

⑤ O 해설 (가)는 부산 재한 유엔 기념 공원의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에 이름이 새겨진, 유엔군 4만여 명이 전사·실종된 전쟁이므로 6·25 전쟁(1950~1953)이다. 전쟁 중인 1952년 이승만 정부는 임시 수도 부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해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47 현대 · 5·10 총선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답 ②

① X 해설 5·16 군사 정변은 1961년의 일이다. 그 뒤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 등이 치러졌지만, 유엔 감시 아래 처음 치른 총선거와는 관계가 없다.

② O 해설 밑줄 그은 「총선거」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된 총선거이므로 1948년 5·10 총선거다. 이 선거로 제헌 국회의원을 뽑았고, 제헌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뽑았다.

③ X 해설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1972년 유신 헌법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뽑았다.

④ X 해설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이루어진 양원제 국회는 4·19 혁명 뒤 1960년 7·29 총선거로 탄생했다.

⑤ X 해설 신한 민주당은 1985년 1월에 창당해 한 달도 안 되어 치른 2·12 총선거에서 제1 야당이 되었다.

48 현대 · 노태우 이후의 정부 정답 ②

① X 해설 국민 교육 헌장은 1968년 박정희 정부 때 발표되었다.

② O 해설 기사는 제24회 서울 올림픽 개회식이 1988년 잠실에서 열렸다는 내용이라 노태우 정부(1988~1993) 때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90년 민주 정의당·통일 민주당·신민주 공화당이 합쳐 민주 자유당을 만들었으므로(3당 합당) 옳다.

③ X 해설 군대 안의 사조직 하나회 해체는 1993년 김영삼 정부 때의 일이다.

48 해설 계속 정답 ②

④ X 해설 삼청 교육대는 1980년 신군부가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통해 「사회 정화」를 내세워 만들었다. 전두환이 권력을 잡던 때의 일이다.

⑤ X 해설 금 모으기 운동은 1997년 말 외환 위기를 이겨 내려고 국민이 금을 내놓은 운동으로, 김영삼 정부 말에서 김대중 정부 초에 걸쳐 벌어졌다.

49 현대 · 유신 체제 정답 ①

① O 해설 (가)는 부산과 마산의 시민·학생들이 일으켰고, YH 무역 사건과 야당 총재(김영삼)의 국회의원 제명 뒤에 일어났으므로 1979년 10월의 부마 민주 항쟁이다. 이 항쟁을 어떻게 다룰지를 두고 정권 안에서 갈등이 생겼고, 10·26 사태로 박정희가 죽으면서 유신 체제가 무너졌으므로 옳다.

② X 해설 시민군을 만들어 계엄군에 맞선 것은 1980년 광주의 5·18 민주화 운동이다.

③ X 해설 김주열은 1960년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마산 시위에서 실종되었다가 눈에 최루탄이 박힌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 일로 4·19 혁명이 번졌다.

④ X 해설 6·29 선언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여당 대표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한 것이다.

⑤ X 해설 대통령이 물러나 미국으로 망명한 것은 1960년 4·19 혁명 때의 이승만이다.

50 현대 · 6·15 남북 공동 선언 정답 ③

① X 해설 남북 기본 합의서는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채택되어 1992년 발효되었다.

② X 해설 7·4 남북 공동 성명은 1972년 박정희 정부 때 발표되었다.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통일 3원칙을 담았다.

③ O 해설 연설에서 노벨 위원회가 남북 관계를 높이 평가했고, 지난 6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처음으로 남북 정상 회담을 가졌다고 하므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이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6월 평양 정상 회담에서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했으므로 옳다.

④ X 해설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은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남북이 합의했다.

⑤ X 해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이 처음으로 서로 오간 것은 1985년 전두환 정부 때다.